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07. 10.(목) 배포 2025. 07. 10.(목) 14:00

“식량안보를 위한 아시아-유럽 협력체계 구축 첫걸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서

‘호라이즌 유럽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 회의’ 개최

- 호라이즌 유럽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실행방안 논의 등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지난 7월 9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유럽유전자은행협의체(ECPGR) 리제 스테판센(Lise Steffensen) 식물유전학부 책임자를 비롯해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 테오 반 힌툼(Theo van Hintum) 식물유전자원부 책임자 등 작물 재래원종(CWR) 분야 세계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라이즌 유럽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한 2025년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 국제심포지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작물 재래원종(CWR)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교 일제 크라너(Ilse Kranner) 교수와 뉴욕식물원의 콜린 커리(Colin Khoury) 협력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추진하고 있는 ‘호라이즌 유럽’과 관련해 유럽연합-아시아 간 작물 재래원종(CWR) 보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앞으로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의 멀티 스트레스 연구와 육종전략,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네트워크 간 수행할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규명 원장은 “한국의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은 유럽에 비하면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유전자원을 이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나채선 (054-679-2768)
	산림생물자원본부 야생식물종자실	담당자	주 임	조민수 (054-679-0957)

대한민국
지식브리핑



지난 7월 9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은 유럽유전자은행협의체(ECPGR) 식물유전학부 책임자 리제 스테판센(Lise Steffensen,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 식물유전자원부 책임자 테오 반 힌툼(Theo van Hintum, 뒷줄 왼쪽 다섯 번째) 등 작물 재래원종(CWR) 분야 세계 석학들이 참석한 ‘호라이즌 유럽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 회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